

# Green Topia 핸디맨

최고의 실력으로 정성껏 시공합니다

**화장실, 부엌 리모델링**  
**나무마루, 타일, 플러밍**  
**창문, 도어락, 전기**

**\*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\***

## 949.751.8851

# 회사,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크레딧!!

개인 크레딧 & 비즈니스 크레딧 상향조정, 용자 저희가 도와 드립니다

<b>개인 크레딧</b>	크레딧고정, 크레딧카드 및 탕감 및 이자율 조정 상담
<b>크레딧 빌드업</b>	주택 렌트비 크레딧 리포트에 반영 및 다양한 솔루션 제공으로 신용 점수 급상승 가능
<b>개인용자 상담</b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최대의 크레딧라인 조성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용불량자 신용거래 즉시가능	
<b>비즈니스 크레딧</b>	비즈니스 크레딧 생성 및 빌드업에 관한 토탈 컨설팅
<b>비즈니스 용자</b>	비즈니스 및 개인 신용 상태에 따른 맞춤형 용자 프로그램

유컨설팅은 공인 세무, 법무 법인이며, 6개의 지사 중 OC와 LA 오피스가 한인 담당입니다

**예약상담 714-989-1231** | **예약필수 213-973-1183**

14730 Beach Blvd, #233, Buena Park, CA 90638 | 3600 Wilshire Blvd, LA, CA 90010

**CONSULTING GROUP**  
Credit Improvement Solution

## 갈갈 웃음

### [아픈 걸 잘 참는 여자]

한 부부가 함께 치과에 갔다. 부인이 치과 의사에게 말했다.

“선생님! 아픈 이가 있는데 빨리 뽑아주세요. 아픈 건 잘 참으니까 진통제는 필요 없어요!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당겨 뽑아 주시면 돼요!”

치과 의사는 감동해서 말했다.  
 “아주머니! 그렇게 아픈 걸 잘 참으시다니, 참으로 용감하시군요. 어떤 이죠?”

그러자 부인이 말했다.  
 “여보! 어서 선생님께 아픈 이 보여 드려요!”

### [셋방 구하기]

어느 허름한 집의 주인이 방 하나를 세 주기 위해 문에 ‘방 있음. 어린이 없는 분’ 이라고 써 붙였다.

그런 후 얼마 있다가 노크 소리가 나더니 8살가량 된 사내아이가 들어와 물었다.

“아주머니, 창문에 써 붙인 걸 봤는데요, 아직 나 가지 않았나 해서요.”

이 아이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을 이어갔다.

“어린이는 없습니다. 나하고 늙은 부모님뿐입니다.”

밖에는 젊은 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. 셋방은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.

### [확실한 병명]

한 여성이 의사를 찾았다.  
 “선생님! 온몸이 다 아픈데 너무 심각해요! 제발 좀 원인을 알려주세요.”

그러면서 손으로 팔을 누르고 나서 “아~!” 하고 비명을 질렀다.

또 다리를 만지며 “아~!” 소리를 지르고, 코를 만지면서도 “아~!” 하고 비명을 질렀다.

여자는 심각하게 인상을 쓰며 말했다.  
 “보세요! 얼마나 심각한지 보셨죠?”

그러자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다.  
 “걱정 마세요~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네요. 당신 집게손가락이 부러졌어요!”

### [부부를 위한 거짓말]

● 아내 기 살려주는 남편의 거짓말  
 “예쁘고 날씬하기만 하네.”  
 “내가 다 할게, 당신은 쉬고 있어.”  
 “엄마가 얼마나 예뻐했는데.”

● 남편 기분 좋게 하는 아내의 거짓말  
 “모텔이 따로 없네.”  
 “나 화 안 났어.”  
 “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?”

### [번번한 이웃]

이웃에 사는 남자가 거의 매일 찾아와 무엇인가

를 빌려 가곤 했다. 어느 날 약이 오른 남편이 아내에게 다짐했다.

“이번에는 아무것도 빌려 가지 못할 거야!”

드디어 이웃집 남자가 찾아왔다.  
 “혹시 아침에 전기톱을 쓰실 일이 있나요?”  
 “어휴, 미안합니다. 오늘 종일 제가 써야 할 것 같은데요.”

그러자 이웃집 남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.  
 “그럼 골프채는 안 쓰시겠군요. 좀 빌려도 될까요?”

### [공중전화로 전성하는 남자]

급하게 집에 연락할 일이 생긴 삼순이. 하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 공중전화를 찾았다. 우여곡절 찾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한 남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. 10분이 지나도 남자가 전화를 끊을 기미가 없자 삼순이는 부스 안을 들여다 보았다.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귀에 대고만 있었다.

화가 난 삼순이가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.  
 “여보세요, 상대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?”

남자가 삼순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정중하게 대답했다.  
 “죄송하지만 지금 통화 중입니다.”  
 “통화중이랴뇨? 주욱 지켜봤는데, 계속 수화기만 들고 계시던데!”

남자가 삼순이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.  
 “지금 마누라와 냉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!”



뭐래~~



**Jin Hyuk Lee**  
**213-210-2898**  
**735 E. 12th St., #308**  
**Los Angeles**

CA Insurance Agent #: 0G84555

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.



**Allstate**  
You're in good hands.

© 2019 Allstate Insurance Co.

9772519